수묵으로 그려낸 생명의 바탕과 근원

김양수
'물길 따라 갔더니 꽃 피었더라' 展
일본 오카자키시립미술관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김양수 作, '정진' . 22×34㎝ 한지, 수묵 담채.

한국화가 김양수 화백이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일본 나고야 동부 아이치현에 소재한 오카자키시립미술관에서 개인전 '물길 따라 갔더니 꽃 피었더라'를 개최한다.

그 동안 한국적인 풍경을 소재로 선적인 세계를 특유의 수묵담채로 그려왔던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역시 먹과 종이라는 재료적인 바탕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인 생명의 바탕과 근원을 특유의 감성으로 그려낸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서정시인 이성신 등 여러 시인과 함께 많은 시화전을 열어온 김 화백은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화집 〈내 속 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 등 4권의 시화집을 펴내기도 했던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도 작품에 그의 시가 함께 한다.

"비탈진 산허리에 올라 / 안골에 피어오르는 안개를 바라보며 / 가려진 세상을 그려보겠다던 / 유년의 꿈은 현실이 되었다 / 깊은 꿈에 취해 드넓은 세상을 / 하염없이 떠돌아 다시 돌아온 고향은 / 산도 바다도 가슴에 있었다. / 아침이면 맑은 빛 온몸을 흔들어 깨우고 / 저녁이면 묵향에 젖은 어둠이 나를 재운다 / 한 자루 붓으로 / 세상에 한 획을 그었던 / 소치 허련 선생이 50세 고향으로 돌아와 / 가슴에 품은 예술을 불태운 자리 / 그 혼불의 언저리에서 나 또한 뜨거운 꿈을 꾼다 / 오늘도 여귀산 바람은 / 대숲에 아득한 길을 만들고 / 길 끝머리에 이름 없는 들꽃과 조우하듯 / 먹물 한 점 삼킨 달빛에 걸린 나를 만난다"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가 소치 허련(1807~1892)이 스승인 추사 김정희(1786~1856)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다음해 1857년 50세에 고향 진도에 내려와 '운림산방(雲林山房)'이라는 화실을 열어 작업에 전념했던 역사를 헤아린 김 화백은 올해 자신의 고향인 진도에 내려가 '적염산방(寂拈山房)'이라는 화실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서 김 화백은 재료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성을 추슬러가는 의식 담겨있다. 김 화백은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보는 그림의 한계를 넘어 소리가 들려오고 향기가 느껴지고 자연의 숨결이 만져지는 입체적인 그림을 추구한다. 김 화백은 그 동안 그림을 통하여 선과 명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명상화법'으로 국내외에 갤러리에서 많은 초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김 화백은 그림으로 시를 그리는 보편적인 시화전의 그림이 아닌 그림으로 시를 쓰는 역설적인 의식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가 열리는 일본의 오카자키시립미술관은 나고야 동부에 있는 아이치현에 있는 미술관이다. 아이치현은 에도 막부의 초대 쇼군인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태어난 곳으로 일본의 역사적 유물이 많은 곳이다. 아이치현 오하라마을은 610년 무렵 우리나라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종이 제조법을 전한 이후 15세기 메이오시대부터 일본의 대표적인 종이인 화지(和紙)를 생산해온 마을이다.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종이 공예가인 무사시노 후지 다스키치(1881~1964 · 무사시노대학) 교수가 종이에 꽃잎과 나뭇잎 등의 자연물을 넣은 '종이뜨기법'을 개발하여 오하라공예지의 산지가 된 곳이다. 이와 같이 일본 종이마을로 유명한 아이치현의 오카자키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한국화가 김양수의 개인전은 또 다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전해진 종이 제조법의 오랜 역사가 흐르고 있는 장소에서 한국화의 깊은 감성을 담은 김 화백의 작품이 전시되는 까닭이다. 이번 전시는 아이치현에서 '한국의 바람'이라는 문화단체를 이끌고 있는 일본인 '오야 미쓰오' 씨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야 미쓰오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에 끌려 여러 차례 국악인 초청공연 등을 주선한 바 있다.

김양수 화백은 동국대학교 미술학부와 성신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중앙미술학원에서 벽화를 전공했다. 신문과 잡지 등에 글과 그림을 연재하거나 지닝들의 책, 곧 이성신의 시집 〈산〉과 진옥 스님의 시집 〈그대, 그대는 낮아서 높습니다〉에 그림을 그려 시화집을 함께 내기도 했다. 국내외 주요 갤러리에서 9회의 초대전과 29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일본 0564-51-4280.

전통 · 현대 어우러진 사경

야납 행오 사경전, 아라아트 갤러리
10월 31일부터 11월 6일


〈묘법연화경〉 전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법신사리를 회향하는 사경전이 열린다. 서예 32년, 사경 20년에 걸쳐 수행과 예술로서의 사경불사를 해온 행오 스님(길상암 주지)이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 갤러리에서 '야납 행오 사경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묘법연화경〉 권 제1~권 제7(감지 백금니. 금니), 〈묘법연화경〉 변상도 7점(감지 금니), 한글 〈금강반야바라밀경〉(흑지 백금니. 금니), 한문 〈금강반야바라밀경〉 (감지 백금니. 금니), 〈관세음보살보문품〉 (감지 금니), 〈관세음보살도+관세음보살보문품 게송구〉 (색지 금니), 한문 금니 〈금강경〉 8폭 병풍 등 행오 스님이 지난 20여 년간 사경한 작품 총 50여 점이 전시된다.

고려 전통사경의 양식과 기법을 계승하고 여기에 창의성을 가미하여 8년에 걸쳐 〈묘법연화경〉전 7권을 한글 번역본의 경문 13만여 자를 6mm 크기의 세자(한글 궁체)로 정직하게 사경하고 변상도(권 제1~7)를 장엄했으며, 현대 사경의 나아갈 길을 고심하여 새로운 표지장엄과 다양한 재료(백금분 사용)를 사용하여 장엄한 〈금강경〉 등을 선보이며, 〈묘법연화경〉 전 7권을 한글 번역본으로 사경한 것은 국내 최초이다.

행오 스님은 권창륜 서예가로부터 서예를 공부했고, 김경호 문하에서 연세대 사회교육원 서예지도과정, 사경계승자과정(3년)을 수료했다. BTN 불교TV 문화센터 전통사경 지도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길상암 사경연구회에서 사경을 강의하고 있으며, 한국사경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2010년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개인전을 비롯해 3회의 개인전과 2011, 201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사경전 초대 출품 등 4차례 회원전 출품, 2007년 서예문화대전 우수상(사경부문 최고상) 등을 수상했다. 2011년 서예문화대전 사경 부문 등의 심사를 맡았다. (02)922-4337. 박재완 기자

국립대구박물관 고려건국 1100주년 테마 전시

'영주 금강사 터에서 만난 보물' 개최
10월 23일부터 2019년 2월 24일까지


금강사터 출토 대표 유물.

국립대구박물관(관장 홍진근)은 2018년 10월 23일(화)부터 2019년 2월 24일(일)까지 테마전시 '영주 금강사 터에서 만난 보물' 전을 개최한다.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는 금광리 유적에서 찾은 고려시대 사찰 금강사지에서 출토된 광명대 등 고려시대에 제작된 출토품 34점을 선보인다.

금강사의 존재가 밝혀진 영주시 금광리 일대는 영주댐 건설이 시작되면서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금광리 유적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조성된 생활, 생산, 사찰 유적 등 675기에 달하는 다양한 유구가 확인됐다. 특히 고려시대 우물에서 출토된 광면대의 명문을 통해 '금강사'라는 사찰의 존재가 밝혀졌다.

금광리는 영주댐의 건설로 수몰되어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지만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의 정보는 고려시대 지방사 연구에 있어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고려시대 사찰인 금강사에 주목한 것으로 고려시대 지방사에서 불교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다. (053)768-6051~2.

박재완 기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